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6호 [루게 제24609호] 주체103(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연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171군부대의 초소들을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연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171군부대 직속 민경초소와 군부대관하 2대대 3중대의 초소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육군상장 서홍찬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군부대직속 민경초소를 시찰하시였다.

코앞에 남조선괴뢰군강패무리들이 우글거리는 최전연초소에까지 몸소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뜻밖에 뵈옵게 된 군인들은 걱정의 눈물을 흘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민경초소앞에 도사리고있는 적진을 바라보시며 적정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의 최전연초소를 목숨바쳐 지키며 일단 명령이 내리면 적진을 단방에 목사발내겠다는 초소장의 결의를 대견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소군인들이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적대세력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기세충천하여 나아가고있는 우리의 전

진을 가로막기 위해 발악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이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 근저에는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전연초병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뜨거운 애국심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건말건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을 치르고있는 초소군인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

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조성된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연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민경초소의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면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슴깊

이 간직하고 반제, 반미계급의식으로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소의 병실, 식당, 일일창고에 들리시여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기와 물고기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근무용간식은 정상적으로 보장되는가를 물어주시면서 군인들이 하나같이 혈색이 좋고 몸이 튼튼한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려고 시찰의 길에 오른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을 믿고 자식들을 최전연에 세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민경초소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증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2대대 3중대의 초소를 시찰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육군상장 서홍찬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훈련은 동부전선을 지키고있는 포병부대들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입하는 적들을 강력한 포병화력타격으로 진압할수 있게 준비되었는가를 검열하고 명포수운동의 불길속에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동부전선 최전방의 영웅고지 351고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된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 장병들의 가슴은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훈련진행계획과 방사포들의 배치상태를 료해하시고 지적된 화력진지를 신속히 차지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지퍼주신 명포수운동의 봉화를 추켜들고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이악하게 훈련해온 군부대 포병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번개같이 기동하여 전투전개를 끝내였다.

쌍안경으로 군인들의 전투동작을

주의 깊게 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화력타격순차와 방법, 목표를 정해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원수격멸의 의지로 응축되던 우리와 같은 폭음이 최전연산발들을 타고 울려 퍼지고 전장을 방불케 하

는 자욱한 포연이 영웅고지 351고지를 감싸안았다.

번개같은 섬광속에 시뻐진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날아갔다.

포탄들이 해상에 우박처럼 쏟아져내리고 물기둥들이 치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련이어 솟구치는 물기둥들을 보시면서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쏘오, 모두가 명포수들이라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적들의 그 어떤 사소한 형태의 전쟁연습소동과 도발행위도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조선인민군의 결사의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후련하게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전연의 화력진지들에서 올린 명중포성은 원수들에게 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서리찬 증오와 분노, 참을길없는 보복일벌의 폭발이라고 하시면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연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의 초소들을 시찰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도표식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초소에 오니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초소를 찾아

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소의 군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동대문초소를 철벽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실, 교양실,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최전

연의 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당에서 취해준 조치들이 은을 내게 하며 지휘관들은 그들에게 더 좋은 근무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초소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 장병들이 최전연을 철옹성같이 지키고있기에 우리 인민이 발편잠을 자고 최고사령관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 171군부대 장병들은 군사분계선 최전방초소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바쳐 사수하며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 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71군부대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 하면서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오늘의 훈련을 통하여 다

시금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 회주의조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세 력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포괄화 되고있지만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 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것은 인민군

장병들이 불타는 조국애와 애국심을 안고 조국의 초소들을 철벽으로 지키 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무모한 침 략전쟁연습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선부대들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는데 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인민군지

휘성원들과 군부대 장병들은 적들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즉시적인 섬멸적타격을 들뜨 을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도반

영원한 인류의 래양

◆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온 행성에 새차게 끊어지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으신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 높이 추켜 드시었던 자주의 기치는 오늘도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나라와 민족, 피부색과 언어는 서로 달라도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한결같다. 세월의 흐름은 모든것을 망각속에서 묻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그리움과 경모의 정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강렬해지고있다. 정령 7월은 온 나라, 온 세계가 맞이하는 그리움의 7월, 영생축원의 7월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태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추신 위대한 어버이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어느 한 외국인은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김일성주석만은 하늘의 태양이 인간계의 태양으로 환생하여 내리신분이시라고 생각한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위대한 태양을 못 잊어 그리며 지난 20년세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선물과 최고훈장, 메달과 상, 명예칭호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오늘도 세계 5대륙 방방곡곡에서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거리와 기관,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시어 주체의 태양은 영원하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서 세계자위위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김정은동지는 평화와 자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의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온 세상을 밝히는 주체의 해를 영원히 꺼지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열화같은 충성과 흥도의 목소리이다. 그렇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 오늘도 태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 위업은 대원수님들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역세게 전진해나갈것이다.

한계단 또 한계단... 백화의 향기풍기고 흥모의 노래울리는 만수대안덕으로 오늘도 그리움의 대화가 물결치고있다. 날과 달을 이어, 해와 세기를 이어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속에는 평범한 선물과 최고훈장, 메달과 상, 명예칭호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오늘도 세계 5대륙 방방곡곡에서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거리와 기관,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시어 주체의 태양은 영원하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서 세계자위위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김정은동지는 평화와 자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의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온 세상을 밝히는 주체의 해를 영원히 꺼지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열화같은 충성과 흥도의 목소리이다. 그렇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 오늘도 태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 위업은 대원수님들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역세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수필 영생 그것은 랑룡색공화국이 찬란히 빛나는 이 땅에 펼쳐진 집요한 현실이며 세기와 더불어 불멸하는 력사의 진리이다. 장구한 인류력사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하시어 인민의 념원을 활짝 꽃피워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랴. 수령영생으로 이어져온 지난 20년처럼 앞으로도 태양영생의 200년, 2000년이 흐를것이다! 바로 이것이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에 관계 세기는 인민의 신념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본사기자 김승표

수령님의 머리에 흰서리내리였을 때에도 그처럼 가슴아파하며 언제나 백두산시절처럼 똘어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던것도 우리 인민이었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탐까지 세워놓고 수령님의 안녕과 장수를 절절히 념원한것도 우리 인민이였다. 그처럼 애국가 바라던 인민의 념원을 꽃피워주시신분은 위대한 장군님 이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러졌을 때에도,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이 제정되었을 때에도 위대한 후계자의 고결한 충정에 우리 얼마나 뜨거운 감사의 정에 눈시울을 적시였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태양의 궁전에서 만민이 드리는 경모의 인사를 받고계시며 인민의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어나는 선군조선의 앞날을 축복해주신다. 주옥같은 진리로 수놓아 주신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은 5대륙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려인이 출몰 보급되고있으며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과 우렁우렁한 음성엔 전파를 타고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날고있다.

우리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임을 수령님시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 거연히

살아나게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도록 하시리라. 우리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온 나라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였으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기 위한 정성스러운 위업에 온갖 지성을 다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영생위업도 수령결사옹위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심장으로 헤치며 영생홍과 똘살을, 혼장보존실, 사적렬차와 승용차, 사적배보존실들과 화폭들이 팔없이 펼쳐져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켰다. 주체 100(2011)년 12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검소한 집무실과 야전렬차에서 사업하시다가 손직하신 어버이장군님을 생전에 더 잘 모시지 못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천 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군님을 추모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 장군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뚜렷이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욱 불타오르는 7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들이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끊 없이 달리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고 진보적인류의 가슴마다에 세계자위위업승리의 새 희망을 안겨주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들도 없는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러는데 비추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성은 불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도 울릴 그치지않고 열화같은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진실하고 역적같은것인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주체 83(1994)년 7월 너무나도 뜻밖에, 너무나 애석하게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온 나라의 샅샅이 피눈물의 바다에 잠겼었다. 피눈물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위대한 장군님께 일원단심 충정을 다 바쳐 갈 불타는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그리고 이 신념의 맹세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수산(당시)에서 사업하시기를 간절히 청원 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와 더불어 빛나는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떠받들려 꾸러졌다. 살아가게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도록 하시리라. 우리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온 나라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였으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기 위한 정성스러운 위업에 온갖 지성을 다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영생위업도 수령결사옹위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심장으로 헤치며 영생홍과 똘살을, 혼장보존실, 사적렬차와 승용차, 사적배보존실들과 화폭들이 팔없이 펼쳐져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켰다. 주체 100(2011)년 12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검소한 집무실과 야전렬차에서 사업하시다가 손직하신 어버이장군님을 생전에 더 잘 모시지 못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천 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군님을 추모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 장군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뚜렷이

우리 인민들의 충정이 얼마나 뜨겁고 순교한가 하는것은 기념궁전을 꾸러는데 필요한 고급석재를 원만히 보장한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잘 알수 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러는데 고급석재가 요구된다것이 전국에 알려지자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 나 필요한 석재들을 다 찾아내어 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훌륭히 꾸러는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당과 수령을 전심으로 받드는 우리의 열정단심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금수산기념궁전지구를 포괄하기 차린치고 통치하려는 뜻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드넓은 수목원까지 훌륭히 꾸러놓았다. 주체 84(1995)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주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충정과 지성이 깃든 금수산기념궁전이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꾸러져 개관식이 승엄히 거행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이 개관되자마자 이곳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찾아오는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물결로 대하를 이루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생전의 모습

성방향과 건설과정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였으며 손수 새 품종의 사철루를 잔디도 심으면서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셨었다. 진정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성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애써온 수령님의 넋을 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하일절경승에 천년만년 높이 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원에 떠받들린 수령영생축원의 대외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일원단심을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러기 위한 백두산적위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셨으로써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과 필승불패의 위력, 고결한 도덕의리성을 체현되였다. 뿐만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천하일절경승에 모시려는 천만군민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복지와 휴식을 갖춘 공원을 꾸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충정의 수레를 아낌없이 바쳤으며 궁전내부와 외부공사에 필요한 비품들과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성방향과 건설과정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였으며 손수 새 품종의 사철루를 잔디도 심으면서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셨었다. 진정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성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애써온 수령님의 넋을 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하일절경승에 천년만년 높이 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원에 떠받들린 수령영생축원의 대외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일원단심을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러기 위한 백두산적위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셨으로써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과 필승불패의 위력, 고결한 도덕의리성을 체현되였다. 뿐만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천하일절경승에 모시려는 천만군민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복지와 휴식을 갖춘 공원을 꾸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충정의 수레를 아낌없이 바쳤으며 궁전내부와 외부공사에 필요한 비품들과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본사기자 김명훈

당의 유일사상교양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일대 사상전, 선진전선의 원바탕이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교양론》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28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75 (1986)년 7월 1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혁명성, 그 독창성과 시대적보편성을 다시금 완벽하게 논증한 기념비적 총서이며 우리 당사상교양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두루 망라한 혁명적총서이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사상교양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회주의정치사상건설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사상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찬란군민을 참다운 주체혁명의 혁명적대오로 키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뜻을 잊으신 분이 없어야 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적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에 의기합으로써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

진하고 환경과 조건도 달라졌지만 로작에 밝혀진 사상리론들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오늘날도 우리 혁명실천에서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셨던 사상론의 가치높이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하고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후손들을 앞당겨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제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해주시고 찬란군민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전 방향으로 밝혀주시고써 우리 당 사상사업전반에서 전환의 시대를 펼쳐놓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에서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넘쳐 세계 싸워나가고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

리 혁명의 천하대본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배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일심단결의 철학이다.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녀야 할 혁명적수령관 의의, 사회주의건설의 전초병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품도 주체사상에 다 담겨져있다.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적합성, 이것이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의 하나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사상사업의 근본원리이다.

지난 20여년간은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년대기로 수놓여져있다. 특히 명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 명도자만을 믿고 믿고 따르는 존엄체제의 위력으로 만만시련을 뚫고온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력사는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철학,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전체 인민이 명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상의적합

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지고 혈연의 정으로 다져진 도덕적리단결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더욱 억세어진 불패의 단결이다. 이런 단결을 깨뜨릴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전제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패는 사상과 신념의 공고성에 달려있다. 우리 사회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철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 승리와 관련되는 사활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더욱 강화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상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력에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전체 인민이 걸출한 반체제교양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열혈의 투사,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 과학적세관, 사회주의만이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참된 삶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줄수 있다는 확신, 위대한 선군명령을 모시기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혁명적신념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억눌린 시련이 닥쳐오든 해도 우리가 나아가갈 길은 오직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회주의길뿐이다. 자기 사상, 자기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한 사상의 강국으로 위용될것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날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제력은 전반적국력의 물질적기초이다. 위대한 자립적경제체제를 가

진 나라와 민족만이 정치적자주성도 견지하고 자위적국방력도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자력갱생의 사상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력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창시된 사상론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동시킬 때 못해낼것이 없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과정에 자력갱생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할수 있으며 이 땅위에 강성국가를 일떠세울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을수 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력갱생의 강국이다. 남의 힘, 남의 기술, 남의 자원으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건설한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뜻이 있고 남다른 긍지가 있다.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길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근본원칙이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걸으며 찬란군민의 심장마다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는 이 땅위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가 있어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불화가 타올라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재단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시고 이 땅위에 우리 식의 문명적대오를 부강한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인도하고계신다. 최단기간내에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로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력사적사건도,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고있는 우리의 조국의 자랑스러운 면모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애국적지가 안아온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수들은 주체의 한길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아보고자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고 당의 현명한 명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불패의 정치사상 교양으로 끝없이 영원을 부릴것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낸 승리승장구하게 될것이다.

오 수 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대순회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만나 분포에 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서 임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쯔르나고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뵈드고리자

쯔르나고라 대통령 필리쁘 부야노위츠각하

나는 쯔르나고라 국경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관계가 앞으로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체103(2014)년 7월 13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몽골 대통령특사일행 경모의 정 표시

민수대연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4일 일행과 대통령특사와 일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인류사주위업수행에 몰두하신 위대한 인민의 친선관계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다닐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권순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종합적이면서 현대적인 대중승마부사가지로 일떠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감성투에 참관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느꼈다. 그녀는 위대한 인민의 명도자이시더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대표단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손명인가족일행, 재중앙명령부사관가족일행, 재중앙일혁명령부사관가족일행, 재중앙가족들이 비행기와 열차로 갔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인대표단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떠나갔다

중국합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류통사, 범덕림, 강자화, 상철기, 죽일행, 재중앙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순옥가족, 리관림가

죽일행이 14일 열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중국합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주보중의 딸 주위,

유촌의 뜻 현실로 꽃피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질안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전시회에서는 2교대작업반이 높이 평가되었다. 당세포서 리용식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의 역할이 컸다. 사상사업을 잘하여 자기자수뿐 아니라 설비의 고장을 미리막을수 있게 수리공구들을 그르히 갖추어놓게 하였던것이다. 그것이 큰 공을 내고있다. 지난 4월 설비를 운전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던 일이 벌어져 생산공정을 세워야 할 긴급한 정황이 생겼을 때 운전공들은 자체의 힘으로 고장을

박봉주 총리 큰물피해막이대책 협의

박봉주내각총리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평양시와 남포시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대동강의 준설작업실태, 수문관리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대동강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물통과농업을 높여 큰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총리는 해당 단위들에서 대동강의 물흐름과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문들에 대한 자동조종체제를 철저히 세워 큰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유촌의 뜻 현실로 꽃피워

후방가족들을 적극 배려해주어

통천군 양서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을 적극 배려해주어 그들이 당면한 농사일에서 앞장서나가고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조국보위초소에서 당조직과 모교에 감사편지가 오면 농업근로자들이 모이는 기회에 널리 소개해주어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이 아들딸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일을 잘해나가고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혁신적인 성과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사업도 잘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여기에 고무된 농장의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총대로 걸 사용위해가는 초소의 자식을 못지 않게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쫓아서 받들어갈 일떠나고 농사일에서 혁신을 일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자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의 열기모임 진행

몽골 대통령특사일행 도착

성실한 부부뜨락뜨르운전수

일본국회의원대표단 귀국

마철수서기장을 비롯한 조일우호친선협회 임원들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국회의원대표단이 1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그들부부는 뜨락뜨르를 자기의 살붙이처럼 여기면서 여러가지 공구들과에 비부수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매일 자급자수를 일일정체회를 드림없이 밀고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일본국회의원대표단이 1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